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을 돌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64년만의 우승 '첫 단추'...클린스만호 '클린 경기'를

아시안컵 축구 개막...유럽과 12명 등 '역대급 전력' 순항 예상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을 노리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바레인을 상대로 무난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치른다.

1956년과 1960년 1~2회 아시안컵에서 우승했으나 이후 정상에 오르지 못한 한국이 세 번째 트로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경기다.

두 차례 우승 이후엔 4년의 준우승(1972-1980-

1988-2015년)에 그친 한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큰 기대감을 받고 있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핵심 선수들이 유럽 '빅 리그'에서 맹활약하면서 아시아 정상에 복귀할 만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번 바레인전은 그 '역대급 멤버'의 기량을 본선에서 처음 내보이며 조별리그를 무난하게 통과할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한 판이다.

한국은 최근 아시안컵 3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 1차전 연승 행진을 이어왔다.

2011년 대회 때 첫 경기에서 이번 상대인 바레인을 만나 2-1로 이겼고, 2015년 대회 땀 오만을 1-0

으로 제압했다. 직전 2019년 대회 1차전에선 필리핀을 1-0으로 꺾었다.

이번 바레인전도 두 팀의 '체급 차'를 뽐낸 한국의 낙승이 전망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만 봐도 한국은 23위, 바레인은 86위로 격차가 크다.

바레인은 월드컵 본선 무대는 밟아본 적도 없으며, 아시안컵에선 4위(2004년)가 최고 성적이다.

이미 아시아 역대 최고 선수 반열에 든 손흥민을 필두로 한국은 이번 대표팀에 유럽파만 12명이 포진했고, 선수 대부분이 자국 리그에서 뛰는 바레인 대표팀에선 체코 블라다볼레슬라프 소속의 공격수 압둘라 유수프 할랄이 유일한 유럽파다.

클린스만호로서 이번 없는 승리로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고 다양한 선수를 기용하며 이어질 경기에 대비하는 데 의미를 뒀다.

대회 시작 전부터 공격적인 한 축인 황희찬과 베테랑 골키퍼 김진수(전북)의 부상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길게는 한 달가량 이어질 대장정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표팀은 이달 초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훈련해 오다 6일 이라크와의 최종 평가전에서 1-0으로 이기며 실전 점검을 마쳤고, 10일부터 카타르에서 담금질해오며 준비를 마쳤다.

역대 두 나라의 A매치 대결에선 11승 4무 1패로 한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패배는 2007년 아시안컵 본선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조별리그에서 바레인을 만나 1-2로 졌다.

이후 3차례 맞대결에서 2승 1무로 앞서고 있는데, 직전 맞대결인 2019년 아시안컵 16강전에선 한국이 2-1로 이기고도 고전한 기억이 있다.

당시 황희찬의 선제골로 앞서다가 후반 32분 동점 골을 내줘 연장전으로 끌려갔고, 연장 전반 추가 시간 터진 김진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이겼다. 이후 한국은 8강전에서 카타르에 탈미를 잡혀 탈락했다.

현재 바레인 대표팀은 선수 시절 스페인 국가대표를 지내고 스페인 FC바르셀로나 등에서 뛰고 있는 후안 안토니오 피시 감독이 이끌고 있다.

피시 감독은 지도자로는 2016~2017년 칠레, 2017~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등을 지휘했고, 바레인은 지난해부터 맡았다.

바레인은 이달 치른 아시안컵 '모의고사'에선 호주에 0-2, 앙골라에 0-3으로 연패했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원클럽맨' 고태원 주장 선임

공격수 김종민 영입도

'용의 해' 고태원이 주장 완장을 차고 부주장 조지훈-유혜이와 전남드래곤즈를 이끈다.

전남이 2024시즌을 이끌갈 주장단을 선임했다. 전남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 고태원이 주장으로 선수단 전면에 선다.

호남대를 졸업하고 2016년 전남에 입단한 고태원은 상주상무에서 군 복무를 한 2018-2019시즌을 제외하고 전남 유니폼만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K리그1과 K리그2를 모두 경험한 그는 후배들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수단을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

고태원은 "2024년은 용의 해이자 전남드래곤즈 창단 30주년이다.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위치는 전남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부주장을 맡은 조지훈은 2011년 수원삼성에서 프로 첫발을 내디딘 프로 14년 차 베테랑 미드필더다.

지난해 FC서울에서 전남으로 이적한 그는 중원과 수비를 오가는 헌신적인 플레이로 후배들의 본보기가 됐다.

조지훈은 "주장인 태원이 팀을 잘 이끌 수 있도



록 의견을 공유하고, 주장의 짐을 덜어주는 게 부주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팀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시즌이 끝날 때 모두가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주장 선임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부주장 유혜이도 프로 12년 차 베테랑 미드필더다. 전 소속팀인 도쿄 베르디(J리그)에서 주장을 맡기도 하는 등 리더십이 뛰어난 그는 전남에서 맞은 세 번째 시즌에 부주장으로 팀을 이끌게 됐다.

유혜이는 "2024시즌은 전남에서의 3번째 시즌이다. 시작부터 감회가 남다르다. 승격이라는 팀의 목표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이야기했다.

주장단을 구성한 전남은 화려 강화를 위해 FA로 공격수 김종민을 영입했다.

188cm-83kg의 체격을 갖춘 김종민은 연계 플레이와 재공권이 뛰어난 최전방 공격수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의 매서움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J리그2에서 활약한 김종민은 2016-2018년 수원 삼성에서 19경기에 나와 K리그1 무대를 경험했고, 지난 시즌에는 K리그2 천안시티에 입단해 25경기에 출전했다.

김종민은 "빨리 팀에 적응해 전남이 승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많은 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메달리스트를 마친 김종민은 14일 태극 방콕으로 출국해 전남 선수단에 합류했다.

한편 지난 8일 태극으로 떠난 전남은 오는 29일까지 방콕에서 2024시즌을 위한 담금질을 이어간다. 이어 광양에서 2차 동계훈련을 갖고 새 시즌을 위한 전력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세영 부상 복귀 첫 우승 7월 '파리올림픽 청신호'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서 타이프징에 '설욕'

'셔틀콕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무릎 부상을 복귀한 뒤 처음 국제 대회 정상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4위 타이프징(대만)을 2-1(20-21, 21-10, 21-1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 국제대회 결승에 오른 안세영은 우승까지 이루면서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청신호를 켜었다.

안세영은 지난해 10월 항저우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천적' 천위페이(중국)를 만나 부상 투혼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결승전에서 입은 무릎 인대 부상으로 5주간 재활-휴식의 시간을 보냈다.

안세영은 11월 16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일본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경기를 통해 39일 만에 코र्ट로 돌아왔지만, 부상에서 회복한 뒤 출전한 3개 대회에서는 모두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 결승 무대를 통해 '설욕전'에도 성공했다.

안세영은 지난 12월 16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WF 월드 투어 파이널 준결승에서 타이프징을 만나 1-2(21-19, 15-21, 20-22)로 지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한 달 만에 성사된 맞대결에서 안세영은 첫 세트 10-21로 내줬지만 2세트를 21-10으로 마무리했고, 3세트도 21-18로 잡으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한편 여자 단식 결승에 앞서 열린 혼합복식 결승에서는 세계 7위 김원호(삼성생명)-정나은(화순군청)이 와타나베 유타-히가시로 아리사(일본·세계 2위)에 0-2(18-21, 15-21)로 지면서 준우승을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